



만첩홍매실 / *Prunus mume* f. *alphanthi* (Carr.) Rehder

---

구분	설명
생물분류	식물
속국명	벚나무속
과국명	장미과
과명	Rosaceae
일반특징	<p>요약설명 : 장미과 낙엽 활엽 소교목으로 전라도, 경상남도, 충청북도, 경기도, 황해도에서 자연적으로 나고 자라거나 재배한다.</p> <p>분포지역 : 전남, 전북, 경남, 충남, 충북, 경기, 황해도에서 야생 또는 재배한다. 일본, 대만, 중국에도 분포한다.</p> <p>형태 : 낙엽활엽소교목</p> <p>크기 : 보통 높이 6m, 직경 60cm 정도</p> <p>꽃색 : 붉은색</p> <p>개화기 : 4월</p> <p>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 또는 넓은 달걀 모양이며 긴 점첨두고 원저이다. 양면에 잔털이 있거나 뒷면 맥 위에 털이 있다. 또한 가장자리에 날카롭고 작은 톱니가 있으며 잎자루에는 분비물을 내보내는 샘이 있다.</p> <p>꽃은 중부지방에서는 4월에 잎보다 먼저 피고 붉은 빛이 도는 겹꽃이며 향기가 강하다. 1~2개씩 한군데에 달리며 꽃자루가 거의 없다. 꽃받침조각은 둥글며 꽃잎은 거꿀달걀모양이고 모두 털이 없다. 수술은 많으며 꽃잎보다 짧고, 많은 수술이 울타리처럼 1개의 암술을 보호하고 있다. 씨방에는 뽀뽀하게 털이 나 있다.</p> <p>열매는 핵과로 둥근 모양이며 부드러운 털로 덮여 있다. 초록색이지만 7월에 노란색으로 익으며 맛이 매우 시다. 단단한 안쪽열매껍질은 열매살에서 떨어지지 않고 겉면에 작은 구멍이 많다. 열매를 오매( )라 한다.</p> <p>어린 가지는 초록색이고 털이 없거나 잔털이 있다. 나무의 모양은 아름다우며 우산처럼 생겼다.</p> <p>서북쪽이 막히고 해가 드는 곳이라면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의 어디에서나 잘 자란다. 그러나 염분에는 약한 편이어서 바닷가 지방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. 접붙이기를 하여 번식시킨다. 붉은색 꽃이 겹으로 피는 매실나무라는 것이 특징이다.</p>